

## 정부·기관 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기준 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 70년대 407mm수준인 1일 최대강우량이 최근 10년 사이 870mm수준으로 2배이상 증가
- \* \*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70 ~ 80년 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1.4배 인 연평균 97회 발생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

은 총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TF”와도 연계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쌀농사 지역에서의 타작물 재배 등 영농여건을 반영한 배수설계 기준 마련과 방조제에 대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이다.

또한, 금번 T/F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등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설계기준개선 방안을 토대로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12)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자 합동교육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환경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2011년도 가축방역, 보건 및 환경 담당자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AI·PI)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보건 및 환경부서 업무 담당자 약 1,2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한 질병 정보와 이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의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경험 및 최근 사회적 관심사인 구제역 등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일선 공무원

대상 합동교육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관계부처간 공동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농산물브랜드, 고객에 대한 약속

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robang」

#### 제31호 발간



브랜드란 특정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명칭·기호·디자인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에는 식별기능을 넘어 기업의 무형 자산이자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가격과 품질 외에 상품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산물에서도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 브랜드의 성공전략, 고객과의 약속'을 대표 주간지 「RDA Interrobang」제31호에서 집중 분석했다. 농산물 브랜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의 약속'으로, 이 약속에 신뢰가 생기는 순간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고 소비한다. 그러나 대부분 인지도와 충성도가 낮고 안정적인 물

량공급과 일정한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브랜드의 범람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RDA Interrobang」제31호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의 성공전략으로 7가지(PROMISE)를 제시했다.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강조해 고객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포지셔닝(Positioning), 품종 개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한 생산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연구개발(Research), 그리고 연중 농산물을 공급하고 조직적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화(Organizing)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 역사, 이야기 등을 엮어 마음을 움직이는 의미(Meaning)를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미지(Image) 창조는 다양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해 소비자의 머릿속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장인정신(Spirit)을 담은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 고품질에 걸맞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감성(Emotion)을 자극하는 브랜드는 소비 창출에 더해 관광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네이밍이 아니라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하에 브랜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RDA Interrobang」 제31호는 제안했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 창출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도 필요하며, 국내외 시장과 고객 트렌드를

조사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브랜드 전략을 지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농산물 브랜드 성공전략, PROMISE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해 개방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농산물이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보고 느끼고 즐기는 어린이 ‘축산소풍’

#### 재미있는 과학쇼와 다양한 축산체험 마련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홍보관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어린이 축산 소풍’ 행사를 열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2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주민들을 초청해 가족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산 체험과 학습을 통해 구제역 여파에 따른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고자 마련됐다. 놀라운 과학 현상을 이용한 마술과 같은 실험을 통해 과학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에게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다양한 모양의 치즈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젓소 젓짜기, 건초굴리기, 사일리지에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농진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애완견, 병아리, 뒤영벌, 칼라누에 등과의 교

감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동물농장도 마련되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 “우리 농수산물 편리하게 쇼핑하세요”

#### aT, 전국 농수산물 비교사이트 ‘싱싱장터’ 오픈

전국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쇼핑몰을 한자리에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는 전국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우수 농수산물쇼핑몰의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관문 홈페이지 ‘싱싱장터’(www.esingsing.co.kr)가 2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T는 “많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오픈하는 ‘싱싱장터’를 통하면 생산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검색하여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싱장터’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aT사이버거래소, NH쇼핑 등 205개 쇼핑몰에 대한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행사나 축제, 특산물, 농수산물을 활용한 한식조리법, 직거래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영제 aT 사장은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aT의 ‘싱싱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

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국내 최초 축산물HACCP 지정 메추리농장 탄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8월 8일 충청북도 영동소재의 정원농장을 제1호 HACCP 메추리 농장으로 지정하였다. 정원농장(대표 김정순)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에 위치한 24만수 규모의 산란용 메추리농장으로, 지난 6월 2일 발표된 비고시품목 유사 HACCP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국내 최초 축산물 HACCP 지정 메추리 농장이 되었다. 정원농장은 이미 지난 2007년 자체 운영하는 알가공장이 HACCP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메추리 농장HACCP 지정을 통해 사육부터 가공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메추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석희진 원장은 “메추리를 비롯한 알가공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최종 완제품뿐만 아니라 사육단계에서부터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금류의 HACCP 지정은 2008년 종계장을 시작으로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및 오리농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축종별로는 닭과 오리에서 각각 36.7%와 6.3%의 지정을 (7월 25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 농협, 「추석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 실시

농협은 추석을 맞아 농협의 식품안전 및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난 8.22일부터 오는 9.16 까지 식품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414개 농협 판매장 및 105개 회원농협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철저한 식품안전 검사를 위해 식품안전연구원에서는 8.16~8.31 기간 동안 제수용품 및 명절 성수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추석 전까지 식품안전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추석 명절 식품안전에 철저히 대비했다.

농협판매장내 추석 명절 제수 및 성수품목의 수입품 혼입 특별관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위변조, 유해첨가물 사용 등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